



‘카라얀의 서커스’ – 베를린 필하모니

– 건축의 유기적 기능주의와 민주적 건축

이 광 표 |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leekp86@hotmail.com

요즘 행복한 취미 생활의 일종으로 오디오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최상의 사운드로 듣는 것이 행복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운드를 재생하는 오디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던 과거에도 ‘연주나 음악을 지금처럼 최상의 사운드나 품질로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든다. 과거에는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연주를 직접 감상하러 다녔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콘서트홀의 명성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을 최대한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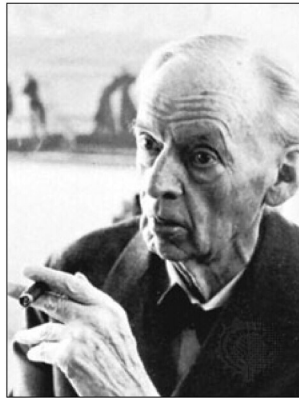
은 품질의 사운드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콘서트홀이 훌륭한 오디오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여기서 홀의 음향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사람들은 한스 베른하르트 샤론(Hans Bernhard Scharoun)이 설계한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의 내부 음향 설계야말로 공연을 위한 세계 최적의 사운드 시스템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한다.

건축가, 한스 베른하르트 샤론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홀의 설계자인 한스 베른하

르트 샤론은 1893년 9월 20일에 독일의 브레멘에서 출생하여 1972년 11월 25일에 생을 마감한 건축가이다. 한스 샤론이 설계한 건축물들은 기능적 처리를 통한 건축적 공간력의 실현이라는 부분에서 그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데, 이러한 성향은 그의 초기 작품인 1930년 전후의 주택 작품부터 이미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나치스 시대에는 활동을 중지하고 많은 건축 구상도를 그렸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5년부터는 베를린 주택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베를린 재건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샤론의 착상은 '민주적 건축'이라고도 불린다. 그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브레슬라우의 연립주택, 베를린의 필하모니 콘서트홀(심포니홀), 베를린의 지멘스타트 아파트, 슈투트가르트의 로미오와 줄리엣, 뤼넨의 여학교 등으로 아파트 건축,



한스 베른하르트 샤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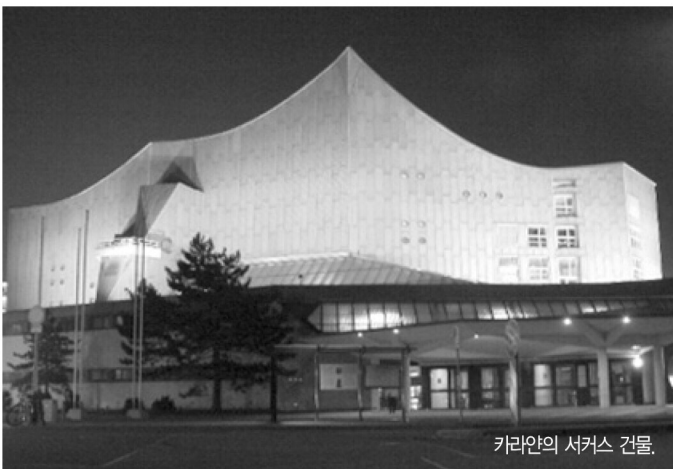
학교 건축, 홀 건축 등의 분야에서 유명한 건축물을 다수 남겼다.

학교 건축, 홀 건축 등의 분야에서 유명한 건축물을 다수 남겼다.

베를린 필하모니의 별명, '카라얀의 서커스 건물'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은 한스 샤론의 대표작으로 불린다. 이는 '카라얀의 서커스'라는 재미있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카라얀'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30년 간이나 이끌어 온 불꽃의 지휘자 폰 카라얀을 가리키며, '서커스'는 비대칭으로 솟아오른 지붕의 모습이 서커스단의 텐트를 연상시켜 붙여진 별명이다. 실제로 폰 카라얀은 콘서트홀 설계안 선정시 공모안들을 평가하였으며, 한스 샤론의 설계안을 극찬하고 한스 샤론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30년 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자의 위치에서 이끌어 오면서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은 점을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적절한 별명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카라얀의 서커스 건물'인 베를린 필하모니는 독일의 티어가르텐(Tiergarten)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베를린 문화포럼(Kulturforum) 지구에 속해 있



카라얀의 서커스 건물.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홀.

인류 역사와 함께한 건설 상품 100선 78

고, 포츠다머플라츠(Potsdamer Platz)와 인접해 있다. 이 건물의 건축주는 베를린시이며, 건축 시기는 1956년부터 1963년이다. 대형 홀은 2,440석의 좌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의 상주 콘서트홀로 사용된다.

베를린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홀

베를린 필하모닉(Berliner Philharmoniker)은 1882년 54명의 야심적인 베를린 뮤지션들이 자신들이 이전에 연주했던 오케스트라를 떠나 그들만의 새로운 오케스트라를 설립하기 위한 결심에서 출발했다. 새로운 오케스트라의 독특한 특징은 조직화 된 민주주의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케스트라와 심지어 주요한 지휘자까지 모든 멤버는 뮤지션에 의해 선택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된다. 1888년 10월 5일 지휘자 한스 폰 빌로의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이후 여러 지휘자를 거쳐 1908년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 출신인 카라얀이 46세의 나이로 베를린 필하모닉의 지휘를 맡는다. 카라얀은 풍부한 음악적 신화와 함께 여러 가지 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카라얀 열풍은 카라얀 마니아를 탄생시켰으며, 슈퍼스타 카라얀 때문에 베를린 필하모닉은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다.

브란덴부르크 문 가까이에 있는 캠퍼광장 부근에 서커스단 천막 모양의 베를린 필하모닉 전용홀인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홀이 있다. 필하모니 홀의 초석이 1960년 9월 19일에 깔리고, 1961년 12월 1일에 완공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1963년 10월 15일 수석 지휘자 카라얀의 지휘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하면서 베를린 필하모니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홀은 외부에서 느끼는 이

상한 모양의 외관을 뒤로 하고, 내부로 들어가면 현대적인 모양의 로비로 구성된다. 콘서트홀의 모양은 오각형이며, 무대를 둘러싼 포도밭 모양의 경사를 형상화한 것으로 객석이 연주 공간을 감싸고 있다. 이는 필하모니 콘서트홀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어느 자리에서든 무대가 잘 보이고 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설계한 것이며,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끊임없이 반영하고 미래의 사용자의 소망과 요구 사항까지 고려한 한스 샤론의 건축학적 노력을 나타낸다. 이를 '유기적 건축'이라 칭하는데, 필하모니 콘서트홀의 공연 공간은 '중심에 음악 - 음악을 가운데 두는 곳'이라는 유기적 관념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슈박스 타입의 콘서트홀처럼 홀의 한쪽 끝에 오케스트라를 배치하는 방식이나, 오페라 극장처럼 프로세니움이라는 형태 구성으로 음악가와 관객을 분리시키는 형태의 공연 공간은 관객과 음악가의 자유롭고 친밀한 소통을 저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좌석 배치 설계 형식은 음악 홀에서의 새로운 형태인 '와인야드(vineyard)' 형식으로 자리잡

콘서트홀에서 외부로 나가는 공간.



게 되며 이후 덴버 콘서트홀(Denver concert hall),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Gewandhaus),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등에 적용된다.

콘서트홀의 건축 음향, '천장의 춤추는 음향판'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홀의 새로운 공간 컨셉트는 음향에 대한 특수한 상황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건축가 한스 샤론은 베를린의 음향 전문 컨설팅사인 로더 크러너(Lothar Cremer)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작업을 같이 진행했다고 한다. 설계자인 한스 샤론과 컨설팅자인 로더 크러너는 높은 품질의 음향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반사 영역을 창출하였으며, 이러한 반사 영역은 홀 안에서 최상의 확산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홀의 각 부분별 객석을 블록으로 분할함으로써 각각의 객석 블록 전열은 무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직접 음이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각 객석 블록의 관객은 관객을 둘러싼 벽에서 초기의 측면 반사음을 받으며, 무대 상부에 춤추듯 설치되어 있는 대형 음향판을 통해 초기 반사음을 전달받는다. 홀의 잔향은 만석시 1.9초(중음)로 천장에 설치된 136조의 삼각모양 레조네이터에 의해 저음의 잔향 특성이 조정된다. 이러한 음향 설계를 통해서 무대의 객석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음색이 아름답고 투명하게 균형형을 이루며, 풍부한 울림은 관객들을 완전하게 둘러싸는 듯

한 느낌을 준다.

인간과 공간 사이의 관계, '공동성'

도시와 건축이 이 땅 위에 서게 되는 동기는 수없이 많지만, 건축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었던 건축은 대개가 문화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 건축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동시에 우리의 삶이 한층 더 높은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금까지 건축가 한스 샤론,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홀, 콘서트홀의 음향 설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주회장을 빠져나오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공간이 펼쳐진다. 계단과 회랑들이 연주홀의 하부인 로비 공간으로 흐르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공간이 오케스트라의 음향처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마치 방금 홀 안에서 들었던 감동적인 연주가 다시 공간으로 변하여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벽찬 감동은 내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도 이어져 있는데,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홀의 외관 곡선이 이를 이어간다. 서커스 건물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외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뜬금없이 보일 수도 있는 이 곡선은 내부에서 외부로 진행되는 감동의 연속인 것이다.

이처럼 한스 샤론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연구한 인간과 공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건축 속에 '공동성(communality)'이라는 가치로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극단적 배타주의를 지향했던 나치가 남긴 참혹한 기억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며, 나아가 일그러진 이념에 대한 인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CERIK

